

보성서 전지훈련 '동성고 야구부'

“명가 재건, 올해는 자신있습니다”



보성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광주 동성고 야구부 선수들이 울포 해수욕장에서 러닝을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해 황금사자기 4강·야구대제전 우승

신인 드래프트 SK 박규민·롯데 문동욱 등 배출

지옥 훈련 소화...“팀워크로 선배들 명성 잇겠다”

광주 동성고의 2014 시즌이 보성에서 무르익고 있다.

동성고 야구부 선수들은 지난 6일 보성 울포에 짐을 풀었다. 김재덕 감독과 김희상·김재현 코치의 지도 아래 이들은 겨울 바람을 가르며 희망의 2014시즌을 그리고 있다.

25일까지 계속될 이번 전지훈련의 가장 큰 목표는 '자신감'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탄탄한 팀워크로 시즌 초반부터 좋은 활약을 펼치는 게 이들의 바람이다.

특히 '만행'이라는 묵직한 책임감을 더 하게 된 3학년들에게 이번 전지훈련은 더욱 간절한 시간이다. 지난 시즌 동성고는

제대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주말리그 전반에서 연패 행진을 했던 동성고는 뒷심을 발휘하며 기적적으로 황금사자기 4강 진출을 이뤘다. 13년 만에 전국체전 광주대표 자격을 얻기도 했지만 후반이 초반 성적은 신통치 못했다.

신생팀이었던 점을 인상고와의 첫 대결도 아꼈었다. 3-0으로 시작됐던 경기가 실수 연발로 3-5로 뒤집혔다. 막내팀의 첫 제물이 되기 직전이었던 9회2사에서 김민혁의 동점 3루타로 한숨을 돌린 동성고는 박고훈의 내야안타로 간신히 승리를 거뒀었다. '야구는 9회 2사'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에게는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악몽의 순간이 됐다.

극과 극의 시즌을 경험했던 주장 박진수는 기분 좋게 시즌을 출발하기 위해 친구와 후배들을 다독이며 고된 전지훈련을 치르고 있다.

박진수는 "3학년이 주장까지 맡게 돼서 걱정이 많이 된다. 지난 시즌 전반기에 4강을 간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신기하다. 또 후반이 예전 성적도 정말 아니었던 것 같다. 올 시즌에는 황금 사자기부터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기분 좋게 시즌을 보내고 싶다"며 "어차피 해야하는 운동이니깐 크게 크게 활기차게 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나는 시즌, 3번 자리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이 주장의 개인적인 목표다. 그리고 '사촌 야구 선수'로 프로무대를 밟는 게 또 다른 바람이다. NC에서 감각 활약을 선보인 동성고 출신의 내야수 노진혁이 그의 이중 사촌형이다.

꾸준한 결심으로 팀 우승에 이르고 싶다는 이들의 바람. 자랑스런 선배들의 명성을 잇겠다는 각오도 특별하다.

동성고는 2014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SK 박규민과 롯데 문동욱 등 두 명의 2차1라운드 선수를 배출하며 '전통의 명문'으로 위상을 높였다. 지난 12월에 열린 야구대제전에서는 쟁쟁한 선배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우승 타이틀을 가져오기도 했다.

에이스 방건우 함께 팀의 중심타자로 어깨 무거운 김민혁은 동성고의 명성을 이을 재목으로 꼽히는 선수다. 김민혁은 "2학년에 올라갈 때는 막내를 면하게 돼서 마냥 좋았었다. 형들이 있으니 부담이 없었는데 3학년에 올라갈 생각을 하니 책임감이 강해지는 것 같다"며 "학생 야구의 마지막이니깐 진로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듣지만 3학년으로서의 역할을 잘해내겠다. 팀워크가 좋은 만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청소년 대표라는 꿈도 이루겠다"고 언급했다.

영광의 순간을 향한 동성고 선수들의 뜨거운 함성이 2014시즌 봄을 재촉하고 있다.

/보성=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시아컵 참석차 북한 방문 보성군청 김용철 역도 감독

“역도로 물꼬 튼 남북 체육 활발한 교류 시작 됐으면”

“역도로 물꼬 튼 남북 스포츠, 올 시즌에는 흥풍이 불었으면...”

김용철 보성군청 역도 감독에게 2013년은 잊을 수 없는 해다. 한국실업역도 연맹 전무인 김 감독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2013아시아컵 및 아시아 클럽 역도선수권대회 총괄로 '가깝지만 먼 땅'을 밟았다.

비자 발급부터 비행기 예약까지 한국과 베이징을 오가며 조마 조마 평양행을 준비했고, 선수들을 독려하며 사상 처음으로 북한에서 태극기를 올리고 애국가를 올렸다. 한국 스포츠에 새 역사를 남긴 그날은 가슴 벅찼던 기억이지만 아쉬움의 기억이기도 하다.

김 감독은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태극기 사건도 그 중 하나다. 경기장 계양을 위해 조직위원회의 요청대로 90cm·120cm 사이즈의 태극기를 준비해갔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준비를 해오지 않으면서 북한에서 직접 참가국 국기를 120cm·180cm 사이즈로 제작해서 계양했다. 경기장이 워낙 커서 큰 사이즈로 제작했는데 태극기만 작은 사이즈로 걸려있어서 한 바탕 소동이 벌어졌다”며 “북한에 태극기 도안이 없어서 우리 국기를 큰 사이즈로 제작하지 못한 것이었다. 결국 다른 나라 국기를 태극기 사이즈에 맞춰 재제작해 걸기도 했다”고 웃었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 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경기장을 찾아 3시간이 넘도록 자리를 지켰다. 시상식 때는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기도 했는데 태극기도 게양이 됐었다. 평양민속공원을 방문했는데 남한의 문화재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선친의 고향이 평양북도 영변이라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방문이었다”고 특별했던 순간을 얘기했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그날의 감동과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감독은 “대회 직후 이산가족 상봉 무산으로 남북관계가 경색이 됐다. 스포츠 교류에 물꼬를 트기는 했지만 그 분위기를 살리지 못해서 아쉽다”며 “대회기간 같이 움직였던 북한 관계자들과는 마지막에 울면서 헤어졌다. 처음에는 기싸움도 하고 오해가 있기도 했는데 형·동생으로 헤어졌다. 다시 꼭 만나자고 약속했다. 이번 아시아게임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 올 시즌 남북스포츠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에게는 지역 체육인으로서 해야할 일도 많다. 보성군청 역도부의 재정비가 그 시작이었다.

김 감독은 “그동안 성적을 잘 내다가 지난해 주춤하기는 했다. 신진 선수의 영입으로 분위기를 전환했다. 2~3년 안에 재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리 지역이 전지훈련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보성에는 대구체고와 충남 음암중 역도부가 전지훈련 캠프를 치렀고, 20일부터 아산 둔포중 등 3개 팀이 더 찾을 예정이다. 동성고 야구부도 김 감독과의 인연으로 보성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다.

/보성=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북한서 울린 애국가 몽클

남북경색 분위기 아쉬워

기싸움 했던 北 관계자

형·동생으로 만나자 약속

”



美 야후 “김연아, 소치서 주목해야 할 선수 15인”

‘피겨 여왕’ 김연아(24)가 미국 포털사이트 ‘야후스포츠’가 뽑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의 주목할 선수 중 하나로 꼽혔다.

야후스포츠는 18일(한국시간) 게재한 ‘소치올림픽의 주목할 선수 15명’이라는 화보 형식의 기사에서 14번째로 김연아를 선택했다.

야후스포츠는 “한국이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획득한 45개의 메달 가운데 오직 김연

아의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만이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이외의 종목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김연아의 2연패를 향한 한국의 기대는 무척 크다”면서 “한국에서 김연아는 가장 유명한 스포츠 스타”라고 덧붙였다.

야후스포츠는 김연아와 함께 피겨 여자 싱글 선수 중에서 에슬리 와그너(미국)와 그

레이시 골드(미국)를 주목할 선수로 선정했다.

골드는 최근 미국선수권대회에서 211.69점으로 우승, 미국 피겨의 기대주로 급부상한 신예다. 반대로 오랫동안 미국 피겨의 간판 역할을 했던 와그너는 올해 미국선수권대회에서 4위에 머물렀음에도 399 미라이 나가수를 제치고 소치올림픽 대표로 뽑혀 논란에 휩싸였다.

/연합뉴스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드립니다.



부담없습니다!

- 5~6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안합니다!

- 한밤 한밤 직접 웨어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 갖고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에게 더욱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차편 15분거리
-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 거리, 충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거리
-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 전 객실 Free Wifi, 비즈니스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www.geumssojang.com

한해동안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새해에도 최선을 다해 고객님을 섬기는

금수장 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2014년 신년회 떡국식사 예약 접수중!

30년 전통의 한정식



-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 32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Coffee & Wine 카페 보네르 OPEN